

일본이라는 아포리아와 마주하기 -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리고, 그 앞뒤에 놓인 것들

홍래성*

I. 머리말 :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탄생 배경

일본인의 콧대를 꺾은 ‘축소지향’의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내셨습니까?
우연이지.¹⁾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유신체제를 선포한다. 유신체제 아래서는 모든 언론이 사전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그 당시 경향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여적>을 고정 집필 중이었던 이어령은 이렇게 사전검열을 감내하느니 차라리 붓을 꺾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숨을 탁탁 조여오는 한국에서

*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객원교수

1) 김민희 (2021). 이어령, 80년 생각. 고양: 위즈덤하우스, 126-127에서 발췌. 이하, 본문에서 서술될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탄생 배경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부분은 같은 책의 126-137을 참고한 것임.

벗어나고자 바랐던바, 이어령은 편집국장 김경래를 찾아가 특파원 신분으로 프랑스에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²⁾ 몇 달 뒤인 1973년 2월, 이어령은 자신의 소원대로 특파원 신분을 얻는 데 성공하여 프랑스로 향하게 된다. 현장 기자 경력이 전무한 특파원이란 전례가 없는 경우였다.

이어령은 곧바로 프랑스로 간 게 아니었다. 아직 프랑스 직항 노선이 개설되기 이전이었던 까닭에 일본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던 이어령은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으나 2~3일 정도 일본에서 머물기로 했다. 그때, 지인을 만나는 어느 자리 도중에 이어령은 “생면부지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농담식 대화”의 일환으로 일본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내게 된다. 이어령은 자신의 전매특허인 유려한 입담으로 좌중을 휘어잡았거니와, 때마침 그 자리에는 학생사(學生社) 사장도 참석해있었는데, 이어령의 말솜씨에 매료되었던 때문인지, 학생사 사장은 이어령에게 방금 한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고 요청하기조차 했다. 그리고, 경유지인 일본을 떠나 목적지인 프랑스로 도착한 이어령은, 그곳에서 롤랑 바르트의 ‘일본론’과 조르주 플레의 「플로베르론」을 접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의식비평(意識批評)의 한 방법으로 일본문화의 텍스트를 읽어보려”³⁾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이른다. 곧, 이어령은 일본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풀어낼 단초를 얻는 것인바, 구체적으로 “「축소지향」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며, “그것으로 일본 문화를 조명해 보면 한국과 분명히 다른 일본의 나상(裸象)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던 것이다.”⁴⁾ 이후, 이어령은 학생사 사장과 출판 계약을 맺고, 근 8년간의 노력 끝에 1981년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⁵⁾ 우연이 없지 않았으며, 우연만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의

2) 박주연 (2016.1.1). [경향사람들](1) 28세 때 논설위원 입사 이어령. 경향신문, 5.

3) 이어령 (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축소지향의 일본인 (중판). 서울: 갑인출판사, 페이지 표기 없음.

4) 위와 같음.

5) 다만, 학생사 사장과 출판 계약을 맺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어령의 인터뷰와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서문에서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 먼저, 이어령의 인터뷰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정을 거쳐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소지향의 일본인』에는 어느 판본이든 그 당시 일본(혹은, 일본과 한국) 매스컴의 반응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⁶⁾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향한 두 나라의 폭발적인 반응은 단순히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신선함만으로 빚어진 게 아니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

과 같다. 이어령은 프랑스에서 돌아오던 중 다시 일본에 들렀을 때, 학생사 사장의 주선으로 일본문화론 특강을 한다. 이후, 이 강연은 회보에 실려 주한일본대사 스노베 료조의 눈에 띄게 된다. 스노베 료조는 관저로 이화여대 총장 김옥길과 이어령을 함께 초청하여 그 자리에서 이어령에게 책 출간을 제의한다. 일본 외무성의 국제문화교류기금으로 지원할 테니 꼭 책으로 써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어령은 동경대 비교문화객원연구원으로 1981년부터 1년 반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쓰게 된다(이상의 내용은 김민희(2021). 이어령, 80년 생각. 고양: 위즈덤하우스, 128-131 참고). 다음으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서문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사상> 관계로 이어령과 자주 마주하던 삼성출판사 사장 김봉규는 이어령으로부터 일본문화를 조명해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김봉규는 이어령에게 그 이야기를 아예 일본에서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 어머니는 제의를 한다. 그러나, 분주한 날로 인해 이는 잊힌 일이 되고 만다. 후일, 이어령은 김봉규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학생사 쓰루오카 사장으로부터 책을 내자는 권고를 비로소 받는다. 그렇게 이어령은 출판 계약을 맺고 근 8년 동안 틈만 나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책 발간 준비를 한다. 그러나,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아세아공론>에다가 한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국제문화교류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년간 동경대에서 연구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일본에서 1년 동안을 밤낮없이 원고 집필에 매진한 끝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탄생할 수 있었다(이어령(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앞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참고).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여둔다면, 어느 신문기사에서는 이어령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탄생 경로를 다음과 같이 밝혔음이 확인된다. “8년전 「프랑스」에 가는 길에 日本을 거쳐 가면서 日本人이쓴 日本論을 읽으니 주로 빵과 밥을 비교하는 日本論이더군요 나는 빵과 밥을 비교해서는 안된다. 밥과 밥을 비교해보아야 韓日의 특성이 드러난다고했더니 옆에서 듣고있던「學生社」의 전부터 잘어는「쓰루오카」 사장이 「책권권 냅시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준비한것을 3년전 日本에 와서 「고이시카와」 로터리 클럽에서 강연했었고 거기에서 호평을받아 「아시아공론」에 3회에 걸쳐 발표할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日本에와서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정구중, 이어령(1982.3.12). (東亞인터뷰)「韓國은 다음 가장 예리하게 본다」. 동아일보, 9)

- 6) 실질적인 판매량도 상당했는데, 일본에서는 발행 6개월 만에 20만을 넘었다는 기사가 확인되거니와, 한국에서는 1982년 비소설부 베스트셀러 6위를, 1983년 비소설부 베스트셀러 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임자(1998).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서울: 경인문화사, 367-368.

본, 곧, 식민지와 식민국이라는 미묘한 역학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향한 일본의 높은 관심도는, 비록 학계 쪽보다는 언론계 쪽에서 눈길을 더 준 모양새이긴 했으나, (한때 식민지인이었던) 한국인의 손에 의해 쓰여진 일본(문화)론이 (한때 식민국의 국민이었던) 일본인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식의 쾌거로 두루 이해되었던바, 이에 따라,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국가적(혹은, 민족적) 자긍심을 넘칠 만큼 고취한 역작으로 인정받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었던 것이다.⁷⁾ 그리고, 지금까지도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이러한 위상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이어령의 화려한 저술 활동 가운데서도 손에 꼽힐 만큼의 혁혁한 성과로, 보다 상세히 말한다면, 1950년대의 『저항의 문학』, 1960년대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등에 비견될 만큼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간주되어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꼼꼼히 탐구한 사례는 흔치 않다. 신문 및 잡지 등에서 기사, 단평, 촌평은 여럿 찾아볼 수 있으나,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형태의 탐사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⁸⁾ 더군다나, (기사, 단평, 촌평 등이 대부분 칭찬 일색인 데에 반해) 연구에 값하는 소수의 결과물은 한결같이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공’보다는 ‘과’를 지적하는 데에 치중된 모습을 보여주는바,⁹⁾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설득력을 갖춘 논의들이 펼쳐졌다고 인정할 수 있긴 하되, 한편으로, 해석의 도달점을 미리 정해놓은 후 이런

7) “이 한 권의 책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을 상대로 토한 기염이며 동시에 우리의 자기의식을 위한 절실한 교훈이다”라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대한 조선일보의 광고 속 문구(1982년 11월 9일자 3면 하단부, 다른 날짜에도 여러 차례 실려 있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해준다.

8)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 형태의 탐사는 鄭大均 (1984), 『「縮み」志向の日本人」への方法論的疑問』, 日本學報, 12, 353-578; 김민정 (2005), 이어령 수필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제3장 제1절; 황호덕 (2010), 일본, 그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 —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일본비평, 3호, 166-191; 전성욱 (2020),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우리문화연구, 65, 375-402 정도가 찾아질 따름이다.

9) 이때, 김민정의 경우는 예외이다. 김민정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탈근대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민정 (2005), 앞의 논문, 47 참고.

저런 내용을 꿰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는가, 또,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여러 요소들을 몰각해버리지는 않았는가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무턱대고 고평가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지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이 글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선학들의 성과에 기대는 가운데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거니와, 이와 함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앞뒤로 한 이어령의 내면풍경까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아카데미한 글쓰기라기 보다 저널리즘적인 글쓰기에 더 근접한 양상을 띠는바,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해석하는 방식보다는 이런저런 맥락을 폭넓게 아우르면서 최대한 너비를 넓혀 해석하는 방식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에게로 곧바로 다가서기보다는 조금 에돌아가기로 하고서, 우선, 이어령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발표하기 전에는 일본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탄생한 배경을 가늠하기 위함이자, 더불어,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후의 궤적, 방향을 살피는 데도 도움받기 위함이다.

II.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전의 대일본관(對日本觀)

1960년 7월호 <<새벽>>에는 유진오와 이어령의 대담 「日本을 말한다」가 수록되어 있다. 4·19혁명 이후 “가장 대중적이고 일상적이며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주의적이며 소위 고급문화에 속하는 것까지 전 영역에 걸쳐”¹⁰⁾ 일본 문화가 폭발적으로 수용되는 분위기 아래 마련된 이 대담은, 일단, 전전(戰前)

10) 권보드래, 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515.

세대인 유진오와 전후(戰後)세대인 이어령 간의 세대(Generation)에 따른 대일 본관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거나, 더불어, 이어령에게만 시선을 한정해볼 때도 이른 시기부터 이어령이 일본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진오는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일본이 건설한 近代文化 그것은 본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근대화하려면 서양으로 가서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단정하고 싶”다고 말한다.¹¹⁾ 문호 개방에 대해서도 유진오는 일부 지식층 간의 교류 정도를 찬성할 뿐이다. 반면, 이어령은 “우리 영·제네레이션은 올드·제네레이션처럼 그렇게 일본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128)다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이유로 “영·제네레이션은 직접 그들에게 지배 된일이 없기 때문”(128)이라는 것과 “그쪽의 젊은 사람이나 우리 젊은 사람은 다같이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실력 차이 같은 것을 느낄 수 없”(128-129)다는 것을 든다.¹²⁾ 더하여, 이어령은 “六·二五 동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의 문제와 직접 대결할 수 있었”(129)으므로 “日本文化를 개방한다 해도 틀리는 될지언정 틀리는 되지 않을 것”(129)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하고, 일본이 서양에 더 가까운 모양새

11) 유진오, 이어령 (1960). 日本을 말한다. 새벽, 128. 이하, 이 글은 연속해서 인용되므로 괄호 속 면수로만 출처를 표기함.

12) 이때, 이어령은 자신이 속한 세대(곧, 전후세대)와 자신의 뒷세대(곧, 4·19세대)를 묶어서 ‘영·제네레이션’이라고 호칭한 것이다. 대부분의 전후세대는 식민지 시기에 유년시절,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이어령 또한 마찬가지였다. 연령상으로 보았을 때, 식민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를 만한 세대는 이어령이 속한 전후세대가 아니라 김치수(1940년생), 김현(1942년생) 등이 속한 4·19세대이다. 다만, 유진오와 이어령의 대담이 이뤄진 시점이 1960년 7월임을 감안할 때, 이때의 이어령은 아직 자신이 속한 세대와 자신의 뒷세대를 구분 지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대가 자신의 뒷세대를 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녔던 상태였으므로, 두 세대를 한 데 묶어서 ‘영·제네레이션’으로 통칭한 것이 아닌가 파악된다. 이어령의 세대의식과 관련해서는 안서현 (2018). 1960년대 이어령 문학에 나타난 세대의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6, 9-41; 홍래성 (2019). 이어령 문학비평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제5장 제2절 등을 참조할 것.

인 것은 맞지만 “우리도 후진이고 일본도 후진인 것은 확실”(131)하다며 한일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치기도 한다. 문호 개방 역시 이어령은 “그들과 自由로 겨누어 거꾸로 새로운 한국의 힘을 인식시켜주고”(133) 싶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이처럼 유진오와 이어령은 다른 위치에서 일본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견해를 각각 펼친 것이다.¹³⁾

이어령에게로 초점을 좀더 맞춰본다면, 이 대답에서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남상(濫觴)이라고 불려도 될 법한 언술들도 종종 찾아진다. 우선, 표현의 측면에서, 비유와 함께 구사되곤 하는 이항대립구조를 통한 비교·대조의 언술이 확인된다.¹⁴⁾ 한 예로, 일본인의 민족성을 ‘벚꽃’에, 한국인의 민족성을 ‘무궁화’에 각각 빗대어 양자 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아래의 대목을 들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일본인의 그 기질이 그들의 國花인 「벚꽃」으로 상징될 수 없을까요. 대개 왜 민족성을 그 나라의 국화와 연관시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¹⁵⁾ 분석적이라기 보다 직관적인 관찰로 말입니다. …… 그런데 「무궁화」와 「벚꽃」은 아주 대차적인 꽃이지요. 활짝 폼다가 금시에 깨끗하게 落花하는 벚꽃은 꼭 「앗싸리」한 맛을 주는데 과연 그네들의 기질이 벚꽃에서 느끼는 인상과 같은 것이겠는지요.(123)

또한, 내용의 측면에서, 이어령이 『국화와 칼』(1946)을 거론하며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가족제도로부터 일본인이 지닌 특징을 끄집어냈는데, 일본의 가족제도와 우리의 가족제도는 사실 비슷하다고 언급하는 구절이 발견된다.¹⁶⁾ 이는 (차후 자세히 살필 예정이지만)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저술 동기,

13) 당연하게도 유진오와 이어령이 대담 전체에 걸쳐 반대의 의견들만 개진한 것은 아니다. 서로가 비슷한 의견들을 드러낸 대목도 많이 발견된다.

14) ‘표현의 측면에서’라고 적어두긴 했으나, 기실, 이어령의 문화비평은 이러한 언술로 전체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이어령은 꼭 문화비평에서만이 아니라 한창 문화비평을 생산하던 데뷔 시절 때부터 이미 이러한 언술을 상당히 즐겨 활용했다.

15) 참고로 벚꽃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꽃이어서 대표성을 띠기는 하되 일본의 국화는 아니다.

16) 부연하건대, 이어령은 이 시기에 벌써 『국화와 칼』을 접했던 것이거니와, 이는 이어령의 학문적 기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아지기에 충분하다. 디들 알다시피 『국화와 칼』은 1974년

그러니까, 일본을 제대로 알려면 서양과의 비교·대조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와의 비교·대조가 요청된다는 식의 사고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당 대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菊花와 칼」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일본인들은 內向的(소극적)이며 동시에 外向的(적극적)인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동양과 서양을 混有해 놓은 것 같은……. 「베네딕트」는 그 이중적 기질을 일본의 가족제도를 통해서 분석해 놓았던(sic;더)군요. 어릴 때는 개방적이고 성장해서는 억압적이라는 면에서 말이지요. 「菊花와 칼」—이것이 과연 일본의 文化型이라면 우리 것은 어떨까요. 베네딕트가 말하는 일본의 가족제도와 우리의 그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125)

결국, 이 대답에서 이어령은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다고 밝히면서(오히려, 일본에 대한 대결의식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 동시에,¹⁷⁾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한 발 뒤떨어졌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부지런한 자세로 일본보다 더 분발한다면, 또, 열린 자세로 일본과 교류한다면, 서양이라는 종착지에 일본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가,¹⁸⁾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의 관

에 이르러서야 김윤식, 오인석의 번역으로 국내에 출판되었다. 『국화와 칼』의 번역과 관련해 서는 김윤식 (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서울: 그린비, 486-550을 참조할 것.

17) 관련하여, 이어령이 “일본 사람들은 우리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四·一九 이후로 그들의 인식이 달라졌을 터이니 이 기회에 알려 주어야지요.”(130)라고 말했던 것을 추가로 가져와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어령이 4·19혁명의 영향력, 파급력을 상당히 높이 사고 있음도 간취되는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18) 이와 같은 이어령의 ‘근대’에 대한 사고는 김윤식의 ‘근대’에 대한 사고와 견주어볼 만하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적어두기는 어려우나 간단히 언급만 해둔다면 다음과 같다. 김윤식에게 평생에 걸쳐 늘 문제로 삼아왔던 것은 대체 ‘근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그러니까, 김윤식은 ‘근대’의 성격, 정체를 알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쉽 없이 한국(근대)문학사를 쓰고, 한국(근대)작가론을 쓴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초기의, 관점에 따라서는 중기, 혹은 현재까지도) 이어령은 ‘근대’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령에게 ‘근대’는 선진과 후진을 가르는 기준 잣대로 여겨졌던바, 후진에 속하는 우리가 하

심이 일본으로만 쏠리는 바람에, 일본이 곧 동양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 실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바라는 사고¹⁹⁾까지가 배면에 밑받침되어 있다.

그런데, 막상 이어령이 60년대에 생산한 문화비평을 살펴보면, 대담에서 스스로가 펼쳐낸 위의 발언들과는 사뭇 맥락이 어긋나서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만드는 서술들이 가끔 찾아진다. 가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1963)에서의 <君子の 싸움>이란 챕터를 보면, “西歐나 日本에는 모두가 決鬪의 風俗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구절에 곧이어서, “그러나 決鬪精神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公明正大하게 내놓고 싸우는 陽性的인 對決精神이 희박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결투대신에 모략과 암살과 遁走의 풍습이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구절들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양과 일본을 묶어서 한 향으로 한국을 이와 대비되는 다른 향으로 구성한 후, 서양과 일본의 결투는 ‘공명정대한 대결정신’으로 연결 짓고 한국의 싸움은 ‘모략, 암살, 둔주의 풍습’으로 연결 짓는 매커니즘이란, 부적절하고 작위적인 이항대립구조의 설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니와, 일종의 자기비

루바빠 선진과 동등해지는 것이 이어령의 목표이자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에, 김윤식은 ‘근대성’과 씨름했고, 이어령은 ‘근대화’와 씨름했다고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19) 해당 구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양에 대한 서구인의 『이그조티즘』을 日本文化가 지금 독차지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소위 「日本·붐」이라 해서 「이께바나」 「庭園」 「御茶道」가 인기라더군요.”(126), “일예를 들면 제 친구 하나가 미국에서 比較文學을 전공하는데 美人교수가 일본의 「하이꾸」(俳句)를 서양의 「올드·밸러드」나 「소네트」형식과 비교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時評과의 비교는 허용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조를 하나의 民俗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의 「하이꾸」와 같은 것에 문학적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시조는 그 사람들이 잘알지 못하면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종의 先入見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의 국력이나 문화적인 뒷받침이 없는데서 오는 것이지요. 좋은 점이 있어도 인정해 주려는 경향이 희박한 것 같아요.”(127-128) 참고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는 축소지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꽃꽂이, 정원, 다도, 하이꾸(俳句)가 모두 다뤄졌다.

20) 이어령 (1963).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현암사, 65-66.

하에 기반을 둔 열등의식의 표출로까지 비취질 소지가 다분하다. 이 외에도 『流刑地の 아침』(1965)에서의 <世界地圖를 펴놓고>란 챕터를 보면, ‘醜惡한日本人’이라는 소항목이 발견되는데, 여기에는 그 제목에서 이미 감지되듯이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이뤄졌다기보다는 감정적 판단이 내세워졌다고 간주해도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대목을 조금 길게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男女 가릴것 없이 온몸에 文身을 그리고 다닌다든지 혹은 걸핏하면 「아 이구찌」(匕首)로 사람을 찌르는 그들의 殘虐趣味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二차대전 時の 「가미가제」특공대 같은 것도 결국 따지고보면 잔학한 「셋부꾸」의 유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문명비평가는 일본을 평하여 「菊花와 칼」이라고 불렀다. 국화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그 기질 뒤에는 칼처럼 살벌하고 피비린내나는 폭력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菊花뒤에 가려진 칼」처럼 무서운 것이 없을 것 같다. 微笑앞에서는 아무도 경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트랜지스터·세일즈맨」의 인상을 헤쳐보면 그 어느 구석엔가 반드시 피도 눈물도 없는 非人道的인 武士의 칼자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 두어야 한다./ 일본 동경에서 「스포츠·카」로 한국인을 치어놓고, 그 重傷者를 실어 시골 뽕나무 밭에 버려 죽게한 사건역시 日人の 殘虐性을 단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그 범인이 아무리 전과五범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와 同乘한 女인이 둘이나 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天人共怒할 일을 저질렀던가? 오늘날 그들은 「스포츠·카」나 몰고 다니면서 현대문명을 謳歌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혈맥속엔 야만 「사무라이」의 殺氣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日人の 殘虐性에 몸서리가 쳐진다.²¹⁾

동경에서 벌어진 일본인에 의한 한국인 사망 사건을 마치 근거인 양 소개하고는 있으나, 특별히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위 인용문이 균형 잡힌 시선과 거리가 멀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를 표할 것이다. 『국화와 칼』을 거론하며 일본인의 이중적 성격, 기질을 끄집어내는 것은 앞서와 동일하되, 이번

21) 이어령 (1965). 流刑地の 아침. 서울: 예문관, 130-131.

는 ‘칼’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본인의 잔학성을 강조하는 모양새이다. 어느 모로 보아도 일본인에 대한 폄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한국을 낮은 위치에다가 서양과 일본을 높은 위치에다가 놓았던 <君子の 싸움>과는 정반대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을 저평가하면서 상대방을 고평가하는 행위와 매한가지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하찮게 취급하는 행위 역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한층 넓은 시야에서 접근한다면, 차라리 이쪽이 더 큰 열등의식의 표출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

이렇듯 1960년대에 이어령은 어떤 데선 일본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고, 또, 어떤 데선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을 드러내 보였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인 통념은 (이 방면의 관련 논의들에서 발견되는 ‘후기식민지 주체’, ‘식민주의적 무의식’ 등의 용어만 보아도 이미 알 수 있듯이) 후자가 더 컸다는 대로 수렴되나, 적어도 여태까지 가져온 문맥만 가지고서는 어느 쪽이 더 우위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쉽사리 내리기가 어려운바, 일단 1960년대 무렵의 이어령을 두고서는 일본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을 지녔던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²²⁾ 그렇다면, 이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무렵의 이어령을

22) 기실, 일본을 향한 양가성(혹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 열등의식)은 전후세대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뚜렷하게 감지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이유인즉, 전후세대는 대부분 일본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당장 이어령만 하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방금 몇몇 구절을 사례로 가져오긴 했으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이어령이 발표한 수많은 글들 가운데서 일본이 대상으로 삼아진 경우는 아주 드문 편이었다). 해방을 맞이한 후 국민국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란 ‘배제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실제 삶의 영역에서, 일본이란 ‘잔존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전후세대가 이러한 아이러니를 뚜렷이 체감했을 터인데, 전후세대는 식민지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을뿐더러, 이에 따라, 일본(어)에게서 지식의 기반, 원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김윤식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아주 인상적이다. “나는 慶南 鎭海郡 進永이라는 한 가난한 농민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는 것은 日本巡査의 칼의 위협과 식량 공출에 전전공공하던 부모님들 및 동리 사람들의 초조한 얼굴입니다. 國民學校에 입학한 것은 1943년으로, 진주만 공격 2년 후이며 카이로 宣言이 발표된 해에 해당됩니다. 十리가 넘는 邑內 國民學校에서 “아카이도리 고도라”, “운시노 다바코”, “지지요 아나다와 쓰요갓다”, “요가렌노 우다” 등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불렀습니다. 혼자 먼 산을 넘는 통학길을 매일매일 걸으면서 하늘과 소나무와 산새 뜰에 뜻도 모르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외로움을 달래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리듬이란 그것

두고서는 어떤 판단이 가능할 것인가. 개인적인 배경도 시대적인 환경도 바뀐 만큼 일본에 관한 관점, 감정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또한, 이와 같은 일본에 관한 관점, 감정 등과 연동하여 일본에 대한 인상도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²³⁾ 지금부터 『축소지향의 일본인』과 그 전후로 이어령이 지녔던 바의 의식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²⁴⁾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이 무렵 가끔 지원병입대 장정의 환송회가 눈물 속에 있었고, 아버지의 징용 문제가 거론되는 불안 속에 우리는 이따금 관술 따기로 수업 대신 산을 해매었습니다. 동리에서도 할당된 양을 채우기 위해 관술 기름을 직접 짰던 것입니다. 그리고 늦그릇 공출이 잇따르고……이러한 일들은 내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拮据性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1년동안 渡日했을 때 ‘靖國神社’에 가끔 가서 느낀 것은 의외에도 이 나의 幼年時節의 뜻모르는 拮据性의 아픔이었습니다.”(김윤식 (1974).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서울: 일지사, 1-2) 결과적으로 전후세대 대다수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일본에 관한 언급을 피했던 소이는, 또 전후세대 대다수가 일본에 관한 양가성(혹은, 일반적인 통념에 따른다면, 열등의식)을 지녔던 소이는 여기서 찾아지는 셈이다. 덧붙여, 전후세대의 자의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수영 (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서울: 소명출판, 제2장 및 제3장을 특히 참조할 것.

- 23)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부터 일본에 대한 탐사는 서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5공화국 때까지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기에, 사실상 1980년대로 접어들면 서부터 일본에 대한 탐사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학계에서도 1980년대부터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본 연구가 시작되었거니와, 민간에서도 1980년대에 일본이 경제적인 초호황기를 맞이하자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본을 분석해보려는 시도가 증가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도 여러 분야에서 일본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는 데에 불을 지폈다. 한편으로, 1980년대는 한국 역시 고도성장을 함에 따라 대중소비사회로의 이행이 이뤄져 일본의 대중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와 전 연령층을 막론하고 유행한 시기였다는 사실, 그리고, 1980년대는 한글세대가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한 시기였다는 사실 등도 일본에 대한 탐사가 증대된 주요 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이어령이 1970년에 떠올린 발상을 1980년대에 들어서 현실화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최구식 (1990.8.16). 主觀的인 “感想文”만 70여종 전문서가 없다. 조선일보 9; 김성민 (2017). 일본을禁하다. 파주: 글항아리, 137-147; 박동성 (2015). 한일 간 인류학 교류와 한국 인류학의 일본 연구. 이종구, 이소지키 노리요 외. 한일관계사1965-2015 III사회·문화. 서울: 역사공간, 468 등을 참고

- 24) 오해를 피하고자 몇 마디 첨언해둔다면, 본 논문은 1960년대의 이어령을 두고서 일본에 관해 양가성을 지녔던 것으로 파악했으니, 그렇다고 해서 ‘후기식민지 주체’로 명명하거나, ‘식민주의적 무의식’의 소유자라고 해석하는 주류를 전연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이어령이 유진오와의 대담에서 일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어찌 보면 유진오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속내와 반대되는 과장적인 제스처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이어령은 일본에 대한 양가성을 지녔다기보다 열등의식을 지녔다고 여길 수 있는

III. 『축소지향의 일본인』과 이어령의 내면풍경

당시 「문학사상(文學思想)」 잡지 관계로 자주 대화했던 삼성출판사 김봉규(金奉圭) 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일본에서 한번 출간해 보자고 제의를 해왔다. 배 안에 있는 아이를 놓고 혼담을 나누는 격이었지만 무엇인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도 같은 것, 한(恨)과도 같은 것, 그리고 무슨 도전과도 같은 긴장…… 그것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그날부터 제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언어의 수인(囚人)으로 자라나야 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다」를 배운 세대였다. 내가 문필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줄곧 이 모욕받은 역사의 빛을 어느 형태로든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따라 다녔다. 그래서 나는 그때 김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습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쓴 책을 일본사람들이 전차간에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내 평생의 소원 하나가 풀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한 복수심만은 아니었다. 무엇인가 그들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출간 제의를 받았을 당시 분노, 한, 긴장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밝혔거니와, 또, 이어령은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움트게 된 데에는 “모욕받은 역사의 빛을 어느 형태로든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의 수단으로써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이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어령은 심리적 부채의 청산 작업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자존감을 내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의식 자체는 전후세대로서 품을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이 가능하더라도, 일본

것이다. 하지만, 이어령을 두고서 1960년대에든 1970년대에든 1980년대에든 그 이후로도 인제이고 일본에 대한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식의 관점에 대해서는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령이 ‘후기식민지 주체’, ‘식민주의적 무의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손 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건 이어령이 이와 같은 예측됨, 종속됨의 상태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선이해에 기인한 잘못된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5) 이어령 (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앞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사람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아”고자 할 때의 그 방법이 다른 아 닌 일본에 대한 (일본 사람보다도 더욱) 깊고 넓은 이해라는 사실은 많은 고민 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어찌하여 이어령에게는 ‘나, 한국인 증명 = 일본 이해’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것인가. 여태까지도 그만치나 일본을 크게 의식하고 있었던 걸로 보아야 할지(양가성(혹은, 열등의식)의 존속), 아니면, 식 민지배에서 벗어난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이제는 피식민지인의 입장에 서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인식(양가 성(혹은, 열등의식)의 극복)을 가졌던 걸로 보아야 할지 판단이 쉽지 않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어령 스스로는 틀림없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여겼 으리라는 것이다. 『축소지향의 일본인』 발간 직후 여러 지면에서 발견되는 이 어령의 한일 관련 언술들이 이를 증거하며,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저술되기 까지의 여러 배경에 대해 이어령이 밝혀둔 언술들이 이를 증거한다.²⁶⁾ 그런 관계로, 이어령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인 식을 『축소지향의 일본인』에다가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다시 말해, 이어령이 양가성(혹은, 열등의식)을 어찌 극복해나가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선행 연구들이 주로 전자 에 집중했다는 사실까지를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접근법이 될 듯하다.²⁷⁾ 몇 가지 화제를 중심으로 절을 구성하여 관련

26) 예시를 하나만 가져오다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출판된 이후 어느 인터뷰에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 수 있다. “『당장 경제나 문화가 앞서게 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日本人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나의 일본생활 1년의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특 히 在日韓國人들에게 나의 책이나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큰 가능성을 보여 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 한국인에게 법적지위나 차별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내 책이 무언가 그 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호뭇한 격려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구중, 이어령 (1982.3.12). (東亞인터뷰)“韓國은 일을 가장 예리하게 본다”. 동아일보, 9.

27) 물론, 앞서 전자나 후자나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비록 이어령 스스로가 후 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지언정, 과연 이어령이 전자와 전연 무관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면, 마냥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어령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 심층에 놓여있는 무 의식이 어땠는지를 제대로 알기란 불가능하거나, 더불어, 늘 생산자가 기획한 대로 형상 화되지 못하는 게, 또, 수용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바로 텍스트의 성질이기도 한 까닭

검토를 본격적으로 수행해보도록 하자.

1. 일본어 쓰기에 대하여

먼저, 앞선 인용문 속의 “제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언어의 수인(囚人)으로 자라나야 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다」를 배운 세대였다.”라는 대목이 새삼 눈에 띈다. 다른 지면에서도 같은 내용을 누차 이야기할 만큼, 식민지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탓으로 주어진 모국어의 결핍 상태는 이어령에게 꼭 극복이 이뤄져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²⁸⁾ 1950년대 말엽에 이어령이 김동리와 논쟁을 벌이게 된 계기도 이와 연결된다. 이어령이 제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오상원의 「모반」을 겨냥하여 어색한 한국어 문장(곧, 일본어 번역투의 문장) 쓰기를 지적하자,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김동리가 오히려 이어령의 산문들 속 어색한 한국어 문장(곧, 국적 불명의 문장) 쓰기를 운운하며 이어령이야말로 오상원보다 더 우리말을 모른다고 반박한 것이 대략적인 경과인데,²⁹⁾ 이는 소위 ‘실존(주의) 논쟁’이라고 불리는 둘 간의 언술 교환 사태에서 가려지기 쉬운 대목이었다.³⁰⁾ 더하여, 1960년대 중엽

이다. 그래서, 선행 연구들은 이어령이 전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로 판단했거나, 관련 하여,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결과적으로 일본특수론의 풍부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아이러니”(황호덕 (2010). 앞의 논문, 169)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나,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일어로 쓰여져 일본서 먼저 출판됐다는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신적 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이 ‘외국’일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 준다.”(조선희 (1992.3.20). 정신적 보복속 지울수 없는 상흔 <축소지향의 일본인>. 한겨레신문, 22)라는 평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8) 이어령의 언어관에 대해서는, 이어령, 김용희 (2005). 이어령 선생의 해방전후 이야기를 듣다. 서정시학, 15(3), 14-26을 참조할 것.

29) 기실, 오상원의 「모반」은 제3회 동인문학상 심사과정에서도 어색한 한국어 문장 쓰기와 관련하여 심사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던바, 김동리, 백철은 긍정의 입장을, 박남수, 황순원은 부정의 입장을, 안수길은 일부 긍정·일부 부정의 입장을 표명했다. 홍래성 (2019). 앞의 논문, 129-130 참고.

30) 이어령과 김동리 간의 대립을 두고서 ‘비문 논쟁’이라고 명명한 논의도 발견된다(박숙자 (2012). 1950년대 ‘문학전집’의 문화사 : 문교부의 ‘우량도서’ 제도와 한글체대의 등장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5, 109). 다만,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이어령과 김동리 사이에서 벌어진 여러 논점들 가운데서 오상원의 「모반」을 둘러싼 논점 외 다른 논점들이 흐릿해질

에 이어령이 “第2世代 (戰爭直後の20代들)들은 日語도 서툴렀고 제나라말도 서툴렀고, 또漢字에대해서도 이는것이없었다. 어중간한 虛空에매달린 歷史의 棄兒같은 存在였다. 그들은 所屬되어있지않았다. 뿌리가 없었다.”³¹⁾라며, 자신을 모국어도 일본어도(그리고, 한자도) 시원찮은 제2세대(전후세대를 일컬음)라고 규정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조로만 한정되지 않는바, 이유인즉, 제2세대가 “國民學校때부터 제나라말을 제대로 배웠단”³²⁾ 제3세대(4·19세대를 일컬음)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는 것으로 이후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³³⁾ 이처럼 이어령은 여러 지면에서 모국어, 한국어에 대한 상실·극복 의식을 계속 드러내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³⁴⁾

그런데, 정작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일본어로 집필했다. 모국어, 한국어에 대한 상실·극복 의식을 되풀이 밝혔던 이어령이 구태여 “재일한국인인 번역가 이은택(李銀澤)”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천 매가 넘는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31) 이어령 (1966.1.5). 第三世代. 중앙일보, 5.

32) 위와 같음.

33) 홍래성 (2019). 앞의 논문, 207 참고. 물론, 제3세대의 입장은 이어령의 주장과 상반된다. 제3세대는 제2세대를 거부하고 부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문단 내 위치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세대가 제2세대를 향해 공격을 가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제2세대는 한국어 문장 쓰기가 미숙하다는 사실이었다. 관련하여, 김현의 “한국어말살정책에 의해 日本語를 국어로 알고 성장한 세대는 급작스러운 解放때문에 文章語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한글로 개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해야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물에 대해 반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일본어로 행해지는데, 그것을 작품화할때는 일본어 아닌 한글로 행해야한다는 어려움, 그것은 思考과 表現의 괴리현상을 낳는다.”(김현 (1971). 테로리즘의 文學 —五十年代 文學小考. 문학과 지성, 338)라는 문구는 이 부류의 논의들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거나, 염무웅의 “그런데 50년대 말경의 이어령씨는 저항문학의 기수였어요. ‘왜 저항하는가, ‘작가의 책임’ 등 사르트르의 앙가주망 이론에 근거해서 작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저항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글들을 썼었죠. 이어령 씨의 첫 평문집 제목이 『저항의 문학』 아니어요?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요. 하지만 지금 읽어볼 때는 아주 역겨워요. 외래어와 외국어도 너무 많고, 또 이어령 세대만 해도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문체 냄새가 많이 나지요. 그러나 당시 읽을 때는 아주 매력적인 문장이었죠.”(염무웅, 김윤태 (1997). 1960년대와 한국문학. 작가연구, 3, 215)라는 발언도 추가로 부기해둘 수 있다.

34) 전후세대의 (이중)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록 이어령의 사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주 22번에서 소개한 한수영의 책이 아주 자세하게 논의를 펼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할 것.

원고를” “서툰 일본어로” 쓴 이유란 무엇인가.³⁵⁾ (각주 27번의 인용문처럼) 여전히 일본이 ‘외국’일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 때문인가. 또는, 일본에서 일본 출판사를 통한 출간이라는 외적 조건의 제약 때문인가.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 외적 조건의 제약 등과 전적으로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령은 일본에서 『「縮み」志向の日本人』(學生社, 1982)을 발간한 후, 곧바로, 한국에서 (주석 및 토씨를 추가한) 일본어판 『축소지향의 일본인』(고려원, 1982)을 발간한다. 그리고, 여기의 서문을 통해 이어령은 한국어판이 아니라 일본어판을 먼저 내게 된 경위를 소개하면서, 일본어로부터 일본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아래처럼 밝혀두었다.

그러나 우리말 出版에 앞서 日語版을 먼저 펴내게 된 가장 큰 理由는 무엇보다도 이 책의 內容과 表現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나라 말로 옮기기가 거의 不可能한 대목이 많아서 우선 原語 그대로 紹介하는 것이 내 뜻을 讀者에게 온전히 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한 데 있다./ 우리 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日本特有的의 言語들에서 日本的特性을 찾아내려 한 것이 나의 方法論의 하나였기 때문에 實은 冊의 題名부터가 우리 말로는 번역되기 힘든 것이다./ 앞으로 韓國語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原本과의 對照가 不可避하게 될 것이므로 미리 이 冊을 서둘러 내는 데 同意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後學들이 日語를 배울 때, 그냥 말만 배우게 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韓國人의 視點에서 日本文化를 照明하면서 그 文化의 올바른 批判과 함께 言語를 익혀 가는 것이 正道이다.³⁶⁾

35) 이어령 (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앞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縮み」志向の日本人』(學生社, 1982)의 후기(あとがき)를 보면, 이은택의 역할이 좀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자료 수집을 비롯해 한국어로 쓴 부분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서투른 저의 일본어로 새로 쓴 부분을 일일이 수정해주신 한국문학의 번역가인 이은택 씨의 협력으로, 본서는 착상 8년 만에 겨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とくに資料収集をはじめ、韓国語で書いた部分を日本語に翻訳し、さらに拙い私の日本語の書きおろし部分をいちいち修正して下さった在韓日人である韓国文学の翻訳家である李銀沢氏の協力によって、本書は着想八年めにしてやっと日の眼を見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李御寧 (1982a). 「縮み」志向の日本人. 東京: 學生社, 309.

36) 이어령 (1982b). 이 책을 읽는 분에게. 축소지향의 일본인. 서울: 고려원, 페이지 표기 없음.

이뿐만 아니라, 이어령은 한국어판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내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만을 적어 간 것이라 한국어로 번역될 수 없는 부분이 반이 넘을 정도다. 제목부터가 실은 번역불가능한 책이다. 「축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일본의 원말로는 「지지미」이다. 그 어감은 「죄다」 「줄이다」 「오그려 뜨리다」 등의 개념을 담고 있어 꼭 꼬집어 우리말로 옮길 수 없는 말이다.”³⁷⁾와 같은 내용을 서문에 적어두었다. 그러니까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국내에 출판하면서 그것이 일본어판이든 한국어판이든 간에 어디서든 꼭 서문에다가 언어와 문화 간의 절대적인 상관성을 토로했던 것이자, 이로 인한 완전한 번역의 불가능성을 토로했던 것이다. 또한, 그런 까닭에서인지, 이어령은 한국어판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내는 과정에서 직접 번역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번역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비록 표지나 판권지에 역자 이름은 없으나 “진현숙, 문애영 두 분이 한국어말로 옮기는데 수고를 해주셨고 거기에 다시 손질을 해서 앞에 내놓는다.”³⁸⁾라는 구절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ジャンケン文明論』(新潮社, 2005)를 『가위바위보 문명론』(마로니에북스, 2015)으로, 『ふろしき文化のポスト・モダン：日本・韓国の文物から未来を読む』(中央公論社, 1989)를 『보자기 인문학』(마로니에북스, 2015)으로, 각각 옮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사항이다. 이 저서들에는 번역자 허숙이란 이름이 아예 표지에 명시되어 있다.³⁹⁾ 이렇듯 이어령

37) 이어령 (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앞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38) 위와 같음.

39) 이 저서들의 소개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자는 배신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내가 일본말로 쓴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내 자신이 번역한다면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된다. …(중략)… 『축소 지향의 일본인』의 한국어판도 실은 내 자신이 번역한 게 아니다. 남의 나라 말로 쓴 글을 모국어로 환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맹정신으로 할 일이 못 된다. 언어 체계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중략)… 변명인지 아닌지 실례를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가위바위보의 학술 명은 ‘권쵸’이라 한다. 일본에서도 가위바위보를 본격적인 학술논문으로 쓴 글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권의 문화사 権の文化史’이다. 우리가 주먹 ‘권’ 자를 쓸 경우 백의 하나라도 그게 가위바위보의 주먹을 뜻하는 ‘권인 줄 누가 알겠는가. …(중략)…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 특유의 문화가 되어버린 ‘권의 문화’를 한국어말로 옮긴다는 것은 그리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

은 일본문화와 관련된 저술은 일본어로만 집필했으며, 다시,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본인의 손이 아니라 타인의 손을 빌리는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이어령은 어떤 나라의 문화를 살피고자 할 때는, 그 나라의 언어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타국의 언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견해는 이어령이 이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즐겨 활용한(한편으로, 신랄한 비판도 많이 받은) 방법, 곧, 특정 어원을 추적함으로써 특정 문화에 관한 해석을 도출해내는 방법과도 이어지는 것이거니와,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해당 실례를 간단히만 제시해본다면, 가령, ‘の’의 연속 사용을 통해서 하iku 속에 담긴 축소지향 의식을 밝혀 나가는 대목이라든지, 또는, 한국어판에서도 ‘쯔메루’, ‘노우팽’, ‘나루호도’, ‘이찌고이찌에’ 등과 같이 원어를 음역 표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빈번하다든지 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어령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일본어로 작성한 까닭이란, 인식의 한계나 외적 조건의 제약보다는, 일본어를 통하지 않으면 일본문화를 제대로 해부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데서 주어진 것이다.

2. ‘축소’라는 착상(또는, 방법론)에 대하여

이 책을 쓰려고 기획한 것은 내가 1973년 불란서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의식비평(意識批評)의 한 방법으로 일본문화의 텍스트를 읽어보려고 한 것은 일본보다도 불란서에서 얻은 착상이다. 롤랑 바르트의

이다. 일일이 주석을 달아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나마 일본의 원전은 헨타이가나 假體假名, 이틀테면 우리 식으로 말해 일본 가나假名를 초서체로 흘려 쓴 글이라 일본 사람조차도 읽기 힘들다.”(이어령 (2015a). 한국어판에 부치는 글. 가위바위보 문명론. 서울: 마로니에북스, 5-6), “연재도, 출판도, 증보판도 모두가 일본어로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편집해 출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고로 개정 집필해야만 했다. 실제로 번역을 의뢰해 출판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여의치 않아 포기한 적도 있다. 그러나 좋은 역자를 만나 『가위바위보 문명론』을 내고 보니 이것 역시 원본을 함께 실어 번역본으로 낼 경우 위험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이어령 (2015b). 한국어판에 부치는 글. 보자기 인문학. 서울: 마로니에북스, 7-8)

『일본론』과, 조르주 플레의 『플로베르論』 등을 읽으면서 내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것이 「축소지향」이라는 개념이었다. 그것으로 일본문화를 조명해 보면 한국과 분명히 다른 일본의 나상(裸像)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들었던 것이다.⁴⁰⁾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이어령은 롤랑 바르트와 조르주 플레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축소지향’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다고, 그리고 이 개념을 원용하여 의식비평의 한 방법으로 일본을 해석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착상(또는, 방법론)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를 알려준다. 여기에다가, 일본판 『「縮み」志向の日本人』의 아래와 같은 후기(あとがき)를 함께 참고한다면,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착상(또는, 방법론)에 대한 윤곽을 조금 더 뚜렷이 잡을 수 있다.

제가 일본인이 가지는 「축소지향력」으로 그 문화를 분석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벌써 8년 전의 일입니다. 그것은 1973년 봄, 제가 한국의 한 신문사 특별취재를 위해 유럽으로 향하는 도중, 며칠 동경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지인들과 회식 자리에서, 당시, 일대 붐을 일으키고 있던 일본론 등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 분위기도 있고, 나는 「토양 분석으로는 꽃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와츠지 테츠로적 풍토론이나 베네딕트 등의 일본론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호연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몰라도, 현재 강물은 우리 눈앞을 흐르고 있다」는 푸앵카레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파고드는 문화의 인과비평(causal criticism)보다는, 그것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시인이 그 상상력의 작용으로 한 편의 시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민족이 주체가 되어 쓴 시의 텍스트가, 다름 아닌 그 문화입니다. 시를 읽듯이 문화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문화」를 분석할 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상력의 뿌리를, 그 출발점을 찾아,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조르주 플레 등이 지적하고 있는 확산과 수축의

40) 이어령 (1983).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앞의 책, 페이지 표기 없음.

운동이라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본서에 담긴 그 골자만을 추려서, 「확산의 문화」와 대극에 있는 「축소의 문화」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⁴¹⁾

위의 인용문에서 이어령은 와츠지 테츠로의 풍토론, 베네딕트의 일본론에 대한 대결의식, 비판의식을 드러냈거니와, 인과비평이 아니라 상상력으로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이러한 상상력 가운데서도 조르주 플레 등이 지적한 확산·수축의 운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렇게 확산·수축의 운동으로 일본문화를 바라보면, 일본문화는 수축의 운동 쪽에 가깝다는 사실을, 곧 일본문화는 축소의 문화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두 인용문을 따를 때,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기저에는 조르주 플레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조르주 플레로부터 의식비평도, 확산·수축의 운동도, 그리고, ‘축소지향’이라는 개념까지도 떨어져 나온 셈인 까닭이다. 그런데, 막상 조르주 플레를 살펴보면, 두 인용문에서 이어령이 말한 맥락과는 다소 어긋나는 점들이 발견된다. 제네바 학파로 분류되는 조르주 플레는 비평을 (작

41) 李御寧 (1982a). 上掲書, 307-308. “私が日本人のもつ「縮みの志向力」でその文化を分析してみたいと思ったのは、いまからもう八年も前のことです。それは一九七三年の春、私が韓国のある新聞社の特別取材のためヨーロッパに向かうその途次、何日か東京に滞在したときでした。/ その折、友人らと会食した席で、当時、一大ブームを巻き起こしていた日本論などが話題にのぼりました。その場の雰囲気もあって、私は「土壌の分析では花の美しさを説明できない」と同様に、これまでの和辻哲郎的風土論やベネディクトらの日本論はもはや説得力をもたない、という豪言とも受け取られかねないことをいっ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さらに「水源はわからなくとも、現に川の水はわれわれの目の前を流れている」というポアンカレの言葉を引きながら、なぜそうなったのかという原因を掘り下げる文化の因果批評(causal criticism)よりは、それがわれわれの前にかにあらわれているかという、現象そのものに対して深く考える視角が欲しい、との意見をつけ加えたのです。/ 詩人がその想像力の働きで一篇の詩をつくるそれと同様に、ある民族が主体になって書いた詩のテキストが、他ならぬその文化である。詩を読むように文化も読まなければならない。だから「つくられた文化」を分析するのではなく、文化をつくっていく想像力の根を、その出発点を探り、ただ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その想像力でもっとも重要な特性が、ジョルジュ・プーレなどが斟酌している拡散と収縮の運動であると……。/ その方法のひとつとして本書に盛られたその骨子だけをかいつまんで、「拡がりの文化」と対極にある「縮みの文化」論を話したわけなのです。”

가의) 의식과 (독자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했다.⁴²⁾ 다시 말해, “비평을 주체와 주체의 만남⁴³⁾”이라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조르주 폴레는 “카테고리(시간, 공간) 또는 형태들(圓環)을 문제”로 삼았다. 조르주 폴레는 “그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參照하여,” “《정신이 자기 육체 및 남들의 육체와 타협함으로써, 客體와 결합하여 主體를 발명해내는 行爲》를 재발견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이 바로 조르주 폴레가 말한 “《의식의 비평》”, “《다른 의식에 말을 거는 한 의식》의 비평”이다.⁴⁴⁾ 그리고, 조르주 폴레는 이러한 비평관에 의거하여(즉, 자기의 의식과 타자의 의식을 합치시키려는 의지를 지니고서) 여러 선구자들(가령, 티보데, 리비에르, 프루스트, 플로베르 등)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어령이 읽었다는 “『플로베르論』”도 이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다. 조르주 폴레가 플로베르를 분석한 대목을 아주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플로베르에게서는 주체와 대상, 주체와 행위 간의 간격이 완전히 좁혀져 둘이 하나와 같이 느껴지는 황홀한 합일적 도취가 발견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것이 곧 사고의 상승 운동이다. ② 황홀한 합일적 도취가 이뤄지는 순간 곧바로 분열이 발생한다는, 다시 말해, 동화되는 정확히 반대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것이 곧 사고의 하강 운동이다. ③ 이러한 ①과 ②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인식된다. 비유컨대, 파도의 진로를 따라가 보고자, 시선이 천천히 넓은 바다로 갔다가, 조금씩 조금씩 발끝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현상과 같은 것이다. ④ 이러한 사고의 상승-하강 운동은 플로베르식의 문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플로베르식의 문장은

42) Poulet. G. (1971). *La conscience critique*. 조한경 옮김 (1990). *비평과 의식*. 서울: 탐구당, 5. 그런 관계로, 조르주 폴레의 비평은 (‘의식비평’과 더불어서) ‘동화비평’이라고도 불린다. 조르주 폴레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 뇌리에 있는 생각을 대뜸 말함이 낯했다. 즉 새로운 비평이란 (소위 《新批評(nouvelle critique)》을 말함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참여(participation)의 아니 차라리 同化(identification)의 비평이라는 점이다. 두 意識의 합치 없는 진정한 비평이란 있을 수 없다.” Poulet. G. ed. (1967). *Les Chemins actuels de la critique*. 김봉구 옮김 (1979). *現代批評의 理論*. 서울: 홍성사, 7.

43) 김현 (1991). *행복의 시학계간의 꿈*. 서울: 문학과지성사, 221-222.

44) Poulet. G. ed. (1967). *Les Chemins actuels de la critique*. 김봉구 옮김 (1979). 앞의 책, 235.

도미문(掉尾文, Periodic sentence)이다. 이는 중심 요지(Main point)를 마지막에 놓도록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문장을 뜻한다. 또한, 플로베르식의 문장은 모든 것이 현재의 것으로 나타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통합의 문장이자, 전제절(Protasis)에서 결과절(Apodosis)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승과 하강의 합성으로써 구성된 문장이다. 그러니까, 플로베르식의 문장은 분해할 수 없는 상승-하강 운동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끝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핵심이 파악되는 문장인 것이다. 이렇듯 플로베르에게서 내용과 형식은 조응되는 양상을 띤다.⁴⁵⁾

결과적으로, 이어령은 조르주 폴레의 의식비평을, 주체의 상상력을 객체(대상, 현상)에 투영하는 방식 정도로 파악했던바, 이는 (주체의) 의식과 (객체의) 의식 간의 일치라는 원래 의미와는 다소 결이 다를 수 있다.⁴⁶⁾ 더불어, 이어령은 조르주 폴레의 상승-하강의 운동을, 이쪽 끝에는 확산(상승)의 운동이 있고 저쪽 끝에는 축소(하강)의 운동이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객체(대상, 현상)에게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의 지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식으로 파악했으나,⁴⁷⁾ 이는 애당초 상승-하강의 운동이 결코 분리 불가능하다는

45) 이 문단은 Poulet. G. (1951). *Études sur le temps humain*. 김기봉 외 옮김 (1998). *인간의 시간*.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317-339 참고; Poulet. G. (1951). *Études sur le temps humain*. Coleman. E. Translated by. (1956). *Studies in HUMAN TIM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248-262 참고

46) 물론, 조르주 폴레를 위시한 제네파 학파에게 상상력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또, 의식의 일치는 상상력의 창조적 움직임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졌다는 사실은, 이어령이 문면에 밝혀놓지는 않았더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는 있다.

47) 이어령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조르주 폴레를 직접 거론한 대목을 보면 이 점이 분명히 포착된다. “조르주 폴레라는 비평가는 「확대」와 「축소」의 두 의식의 지향성으로 『보바리 부인』을 분석하고 있다. 마담 보바리는 확산에의 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 그 확산의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이 소설의 결정적 터닝 포인트인 보비에사르 저택에서 자작(子爵)과 왈츠를 추는 그 유명한 장면이다. 그녀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선회 운동을 하는 그 춤의 이미지는 상류사회와 더 넓은 파리의 사교계에 나가고 싶은 마담 보바리의 꿈 그 자체인 것이다. 물이 괴어 있는 늪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왈츠춤의 선회는 자신이 사를르 보바리와 살고 있는 권태로운 좁은 동네를 뒤로 하고 한번도 가 보지 못한 넓은 세계, 파리로 끊임없이 빠져가는 파문이라 할 수 있다.”(이어령 (1983). 앞의 책, 163-164) 한편, 전성욱도 “이어령이 설명하고 있는 폴레의 그 축소와 확산의 논의는 소박한 이원론을 벗

원래 의미로부터 제법 멀어진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⁴⁸⁾

단순히 이어령이 조르주 플레를 잘못 읽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이론을 변용시켜 이를 자신의 무기로 삼는 태도를 이어령은 이미 과거에서부터 여러 번 보여주었다. 자신의 주장에 적합하게끔 특정 이론의 어느 부분만 뽑아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이론의 원래 의미를 바꿔서 활용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찾아지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어령이 특정 이론을 왜곡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서는 효과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다. 이어령이 특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원래 의미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어령은 그릇

어나지 않는다.”(전성욱 (2020). 앞의 논문, 394)라는 의견을 내비친 적이 있다.

- 48) 덧붙이자면,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기린원, 1994)에서도 다음과 같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착상(또는, 방법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축소’란 어디까지나 확대의 대립 개념으로서, 비로소 그 의미가 주어진다. 즉 ‘수축’과 ‘확산’의 대립은 자연과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변형 생성 법칙을 서술하는 가장 유효한 운동 개념인 것이다. 괴테는 ‘식물의 변태’에서 그 양극 개념을 취하여 자연을 관찰했으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논할 때 많은 예술사가(藝術史家)들이 흔히 ‘수축’과 ‘확산’을 원용(援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바슐라르를 비롯하여 조르주 플레 같은 비평가들이 역동적(力動的) 상상력을 탐지하는 키워드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비교 문화론에 응용한 것이므로, 축소지향의 일본인들에게만 나타나 있는 의식 현상(意識現象)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문화는 과연 어느 지향으로 나아갔을 때 더욱 그 특색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여 일본의 문화는 수축과 확산이 어느 운동에 의해 더욱 그 차별성이 나타내는가에 대한 관찰의 표명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게 생각되지만 축소지향과 확대지향의 대립은 질서와 혼돈, 폐쇄와 개방, 구상과 추상, 형식과 실질, 긴장과 이완, 구속과 자유, 집중과 분산 등 수많은 대립 체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문화의 폭넓은 분야를 조명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이어령 (1994).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서울: 기린원, 12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어령에게 확산과 축소는 대극 관계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어령은 괴테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는데, 정작 괴테는 “다양한 식물세계를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로, 즉 하나의 유형으로 환원시키려고” 했으며, 이 하나의 유형을 “원식물Urpflanzen이라고 불렀”던바(강두식 (1994). 괴테의 자연탐구. 독일학연구, 3, 109-110), 알맞은 사례로 여기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많다. 물론, 괴테가 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려면 ‘씨앗 - 줄기 - 잎 - 열매’ 순으로의 ‘변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열매 쪽을 확산으로 씨앗 쪽을 축소로 각각 설정해볼 여지가 주어질 듯도 하나, 이런 설정이란 각각의 형태는 ‘단 하나의 기관ein einziges Organ’이 변화해서 그 모습을 달리하는 것(임재동 (2002). 괴테의 시 ‘식물의 변태’, 에서 서정적 주제. 헤세연구, 7, 82)이라는 본래 의도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음이 부정되기 어렵다.

된 활용의 위험성과 창의적 활용의 가능성 사이에서 늘 유동하고 있었고 (기준점을 대중들의 쉬운 이해와 높은 호응에 놓는다면) 후자 쪽의 결과를 대부분 도출해냈다.⁴⁹⁾ 이번 경우도 그러하다. 비록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이어령은 조르주 폴레를 구미에 맞게 이용하여 ‘축소’라는 개념을 끄집어낸 다음, 이로써 일본문화를 효과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⁵⁰⁾ 그렇기에, ‘축소’의 열쇠 하나로 일본문화의 모든 문을 열어젖히는 솜씨야말로 (비록 공부정, 호불호가 분분하되) 다른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이어령만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 정합성, 타당성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솜씨를 살피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 더 생산적인,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어령이 “사실이든 아니든 논리적 구조가 맞으면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추리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과학과는 다른 인문학(Liberal arts)이다.”⁵¹⁾라는 식으로 생각했음을 참작한다면 솜씨를 살피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 한층 더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이어령이 내보인 솜씨란 도대체 어떠한가. 이제 실제의 서술 양상을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가, 전체를 세부 맥락에 따라 제1장, 제2장~제5장, 제6장~종장(終章)으로 삼분하여, 그 각각을 주의 깊게 살피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자.

3. 실제의 서술 양상에 대하여

레비-스트로스는 해당 문화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교육받지도, 훈련되지도 않은 사람은 제아무리 그 언어에 능통하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다

49) 이어령이 내보인 특정 이론의 자의적 활용에 대해서는 홍래성 (2019). 앞의 논문, 181-183 참고

50) 이 과정에서 ‘확대’라는 개념은 대부분 서양과 연결된다(기쁨은 한국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는 ‘일본=축소, 서양=확대’라는 도식이 은연중에 작동하는 것이다.

51) 필자가 2020년 10월 22일에 이어령 선생님을 뵈었을 때 들게 된 내용이다. 이때, 이 내용이 『축소지향의 일본인』과 관련한 맥락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나온 것임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을 약간 정제하여 적어두긴 했지만, 애초에 입말인 관계로 다소 과장이나 비약이 있을 가능성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른 외부적 수단이 있어도” 그 “문화의 가장 내밀한 정수에 닿기는 늘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⁵²⁾ 또한, 누군가는 “이미 한 문화의 구성원”이므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따라서 그 문화를 통해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는 것은 애당초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⁵³⁾ 그러나, 레비-스트로스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불가지성(不可知性)을 주장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인류학은 안으로부터의 문화는 결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도식으로 축소하여 밖에서 본 전체적인 관점을 제안할 수는 있”다는 것, “자기 문화에 너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밖에서 본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수 있”다는 것⁵⁴⁾이 레비-스트로스가 도달한 결론이다.⁵⁵⁾

그런데, 레비-스트로스와 이어령은 사정이 좀 달랐다. 이어령은 (비록 그것이 비자발적, 피동적 조건으로 주어졌을지언정) 일본의 통치권 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그러니, (비록 스스로가 서툴다고 밝히긴 했으나) 일본어를 구사하는 데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어령은 일본인이 아니었다. 이어령은 자기 문화와 일본문화 간의 괴리 현상을, 혹은, 자기 문화가 일본문화에 의해 억압되는 현상을, 식민지 시기였던 유년 시절 동안(어쩌면, 해방 이후의 청년 시절에도)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러니까 이어령은 한때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위치를 경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령은 불안한 지반 위에서 이러한

52) Lévi-Strauss C. (2011). *L'Autre Face de la lune*. 류재화 옮김 (2014). 달의 이면. 서울: 문학과지성사, 16-17.

53) 위의 책, 17.

54) 위의 책, 20.

55)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은, 롤랑 바르트의 일본(문화)론인 『기호의 제국』(1970)에 관한 아래의 평가와도 유사하다. “『기호의 제국』에서 바르트는 겉으로는 객관적인 시각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의 문화사,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 분석의 문제 전체를 비판의 최전선에 가져다 놓는다. 일본의 문화사에 관한 유일한 진실 Truth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글을 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한 편견 없고 전지적인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다.”(Trifonas, P. P. (2001). *Barthes and the Empire of Signs*. 최정우 옮김 (2003).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서울: 이제이북스, 50)

경험이 오히려 일본문화를 조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안으로부터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을뿐더러, 밖에서 본 전체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여긴 것이다.⁵⁶⁾ “임계적인(liminal) 존재”로서 “경계선의 안팎”뿐만 아니라 “친숙한 외부와 낯선 외부, 실재적 외부와 잠재적 외부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⁵⁷⁾ 그리고 이와 같은 이어령의 인식에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출발한다. 제1장인 “日本文化論의 出發點”은 입론 단계에 해당하는 대목으로, 여기서 이어령은 어린아이로 돌아가 일본(문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축소’라는 핵심어로 일본(문화)을 해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다다른데, 이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따라가 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나는 지금 희끗희끗한 새치가 돋기 시작한 대학교수로서 혹은 시력 0.2의 근시안경을 낀 문예평론가로서 일본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우선 국민학교의 어린시절로 돌아가 일본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려고 한다. …(중략)… 단순한 알레고리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나의 일본어와 그 지식의 대부분은 식민지 통치를 받던 국민학교 교실에서 배운 것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왜 내가 굳이 그 어린시절로 돌아가 일본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데 있다./ 이 당돌하고도 무모한 모험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유명한 안텔센의 동화 『발가벗은 임금님』이 그런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56) 이 점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부록(“매스컴의 反應”)에 수록된 어느 글에서도 지적된 적이 있다. “일본식으로 말하면 昭和 初葉 세대에 속하는 나씨는, 일본 지배하의 「국민학교」에서 황당무계한 植民地 교육을 받고, 「해방」과 조국 복귀, 다시 西歐 체험을 겪은 뒤에 다시금 일본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러한 나씨의 일본 접근의 자세에는, 복합적인 그리고 多元的인 複眼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當爲의 일이라 하겠다.” 이어령 (1983). 앞의 책, 354-355.

57) Naoki Sakai (1997).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서울: 이산, 39 참고 사카이 나오키의 논의는 번역자의 위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것이므로, 이어령의 경우와는 다소 맥락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경의 경계에 서서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역할에 방점을 놓는다면, 사카이 나오키의 논의를 이어령의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8) 이하, 제1장과 관련한 본문 내용은 이어령 (1983). 앞의 책, 11-38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임.

어른들은 군중이 만들어 낸 환상의 옷을 통해서만 임금님을 바라본다. 남들이 모두 떠들어대니까 임금님이 발가벗은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잘못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잠자코 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알몸을 발견한 것은 아이들의 눈이었고 동시에 큰소리로 그것을 말한 것도 아이들의 입이었다.⁵⁹⁾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막을 올리는 구절이다. 이 중에서도 어른들은 환상의 옷을 통해서 대상을 바라보지만, 아이들은 알몸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까지의 일본(문화)론은 그 모두가 환상의 옷이 입혀진 상태였다. 이때의 환상의 옷이란 서양과의 대비를 통해서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한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서양에 없는 것=일본의 고유한 것’이라는 사고를 의미한다. 가령, ‘아마에(甘え)’와 같은 말을 일본 특유의 어휘로 간주한 도이 다케로(土居丈朗)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도이 다케로는 아마에에 대응하는 말이 서양에서는 찾아지지 않으니 아마에를 일본 특유의 어휘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서양이 아니라 한국과 견주어 보면, 도이 다케로의 견해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마에에 대응되는(혹은, 아마에보다 더 세분화된) ‘어리광’이니 ‘응석’이니 하는 단어들 찾아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본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서양과 견주어서 특이성을 찾아내는 이와 같은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알몸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말하겠다는 결심이란 바로 이것을 뜻한다.

그런 다음,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에 대한 비판이 펼쳐지고, 연달아, 루이스 프로이스, 루스 베네딕트 등의 저서들에 대한 비판이 펼쳐진다. 이유 인즉, 이들의 저서는 한결같이 일본(문화)론에 해당하거나, 내용 전개 방식에 있어서 도이 다케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까닭이다. 이들의 저서에서 일본 고유의 성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목록 중 다수는 동북

59) 위의 책, 11.

아시아에서, 즉, 중국과 한국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진정 일본만이 지닌 독특함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서양과 맞대어보는 게 아니라 중국, 한국과 맞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뒤따라 제시되고, 다시 범위를 더욱 좁혀서, 한국과 맞대어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뒤따라 제시된다. 나아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끄집어내면서 민족의식조차 변변찮던 그때의 경험이야말로 선입견 없는, 편견 없는 원경험(原經驗)이라고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일본문화에서는 끝내 동화될 수 없는 어떤 낯선 요소들이 느껴졌다는 것을, 다시 말해, 분명히 내 것이 아니라는 데서 주어졌던 이질감을 언급한다. 이러한 이질감이야말로 일본(문화)만이 지닌 독특함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그렇게 어린아이로 돌아간 후, 이질감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을 시작한다. 우선, 잇스보시(一寸法師), 모모타로(桃太郎), 긴타로(金太郎), 우시와카마루(牛若丸)를 고비토(小人)와 연결키시며 본격적으로 ‘축소’라는 개념을 꺼내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서, 양국의 옛날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은 큰 것을 지향하는 반면, 일본인은 작은 것을 지향한다는 식의 상반 관계를 도출해내고, 또, 마메(豆), 히나(雛), 사이쿠(細工)와 같은 단어 용례로써 일본인에게는 작고 섬세하게 줄이려는 의지가 내재해있음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인의 축소지향성은 단순히 섬나라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풍토론(風土論)으로 설명이 안 되는바, 의식적인 측면으로 곧, 수축적인 상상력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낸다.

수축적인 상상력이 거론되었으니만큼, 이제 범위는 문학 일반의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간다. 먼저, 하이쿠라든가, 만요슈(萬葉集)라든가, 장편소설(掌篇小説)이라든가 하는 사례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거대주의를 보여주는) 프랑수아 리블레의 소설과 (극소주의를 보여주는) 에지마야 기세키(江島屋其磧)의 소설 간 대비가 제시된다. 끝으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오랑캐꽃만 한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라”라는 하이쿠가 제시된다. 이러한 실례가 계속해서 쌓이는 동안 일본인의 축소지향성은 슬그머니 일본(문화)만이 지닌 독특

함을 대표하는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상의 경로를 거치면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의 대전제는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제1장은 상당히 묘한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축소지향성과 일본(문화) 간의 연결 짓기는 객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주관의 영역에 속한다.⁶⁰⁾ 흔히들 일본(문화)은 작은 것을 추구한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인상에 기반한 선입견, 편견일 따름이다. 그런데, 객관적이라고 인식되게끔 만들어야만, 축소지향성을 통한 일본(문화)의 여러 사례 분석이라는 제2장에서 제6장까지의 후속 작업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곳저곳에서 예시를 끌어모아 제시하는 파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본(문화)을 관통하는 구조를 드러내 보이는 체계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⁶¹⁾ 그러므로, 축소지향성이라는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을 일본(문화) 해석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시키는 작업은 어떻게든 꼭 필요한데, 이럴 때, 문제는 적절한 이론적 배경을 확보하는 것이 도무지 난망하다는 데에 있다. 어떻게 해야 축소지향성과 일본(문화) 간의 연결 짓기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도록 만들 수 있을 텐가. 이 지점에서 이어령이 가진 수사(修辭)의 힘은 여실히 발휘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어령은 오히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법을 취해버린다. 어린아이가 일본에 대한 이질감을 느꼈다는 것, 그 이질감이 곧 축소지향성이라는 것이다. 사실, 어린아이의 실감이야말로 선입견, 편견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미성숙의 상태이니 유년

60) 관련하여, 황호덕은 잇스보시가 20년 전의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에서는 “확대지향 혹은 확장주의의 전형적 사례”로 제시되었음을 지적하면서, 1960년대 이어령과 1980년대 이어령 사이의 위상, 환경 차이가 “이야기에 대한 해석 자체의 풍화와 변화를 낳”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황호덕 (2010), 앞의 논문, 182-183).

61) 이에 대해서는 “나는 그 책에서 문화적 보기(例)를 하나하나 나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한 ‘체계’를 쓰려고 한 것입니다.”(이어령 (1986a). 한국과 일본과의 거리. 서울: 삼성출판사, 275), “내가 그 책을 쓴 것은, 한두 가지 예를 보고 ‘과연 그렇구나’ 하고 긍정하거나 이것은 틀렸구나 하고 지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문화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잘라 본다면 어떠한 일본 문화의 나뭇결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같은 책, 275-276)라고 한 이어령의 발언을 부기해둘 수 있다.

기의 (무)의식이니 하는 부연을 구태여 덧붙일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어령은 어린아이의 실감이 선입견, 편견과 무관한 원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상당히 아이로니컬한 이 주장은 신기하게도 막상 글을 읽어나가는 도중에는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진다. 환상의 옷을 보는 어른의 시선과 알몸 그대로를 보는 아이의 시선이라는 대비가 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⁶²⁾ 또, 식민지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탓으로 민족의식조차 형성되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의 문화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덧대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어령은 주관 너머의 객관인 마냥 축소지향성과 일본(문화)을 이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 어린아이의 경우마저도 벗어나 일반의 경우로까지 슬그머니, 자연스레 비약을 감행한다. 일본 문화 전반을 훑어보아도 축소지향성을 띠는 게 금방 목도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제1장을 거치면서 축소지향성은 일본(문화)을 꿰뚫는 마스터키로서의 위상을 확보한다.

제2장에서 제5장까지 일종의 예증 작업이 펼쳐진다(이미 여러 군데서 다루어졌으므로, 제2장에서 제5장까지를 두고서 몇몇 부분을 가져와 자세히 소개하는 방식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어령은 “문화의 흔적(기호)을 읽기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하고 구체적인 작은 일에서 전체의 구조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⁶³⁾ 한다는 자세를 쪽 견지했다. 이미 제1장에서

62) 그런데, ‘별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도 각주 60번에서 황호덕이 지적한 사례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곳에서는 알몸 그대로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목도되지만, 저곳에서는 허구의 정신을 없애버리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이 목도되는 것이다. “원래 언어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 상상의 실로 짠 것으로 실제 직물이 아니다. 문화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런 허구의 실로 짜인 화려한 옷감이다./ 리얼리스트들은 철없는 아이처럼 언어 텍스트가 실재가 아니라 허구임을 발힘으로써 임금의 추악한 나체를 드러내고 말았다.”(이어령 (2016). 즐기는 자들의 행복한 대학. 김형석 외.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서울: 프런티어, 66) 각주 60번에서 황호덕이 지적한 사례와 ‘별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같은 대상 다른 해석은 여러 곳에서 종종 찾아진다. 이러한 같은 대상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하나) 근대화에서 탈근대화로의 이행 아래 행해진 기존 소재들에 대한 다시 쓰기의 과정이라고 본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김민정 (2005). 앞의 논문, 60-61 참고).

63) 이어령 (1986b). 신한국인. 서울: 문학사상사, 150.

축소지향성을 언명했으니만큼, 이후의 실제 서술 양상은 연역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귀납의 방식에 더 가까운 듯 여겨지나, 전체적으로 보아 “생활과 밀접하고 구체적인 작은 일”로부터 축소지향성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여러 방면에 걸쳐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일본의 대표 문화 상징물에 기반하여 축소지향의 여섯 가지 모형(이레코(入れ子)형, 질부채(扇子)형, 아네사마(姉妹)형, 인형형, 도시락형, 노멘(能面)형, 문장(紋章)형)을 설정한 다음, 제3장에서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아, 제4장에서는 인간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제5장에서는 산업을 대상으로 삼아, 각각에 잠재된 축소지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나간 것이다.⁶⁴⁾

제2장에서 제5장까지가 사실상의 본론이니만큼, 『축소지향의 일본인』에게 가해진 공격들은 주로 여기의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일단, 축소지향성이라는 현상을 낳은 근본적 원인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이 주류를 차지한다. 한편, ‘평균적인’이라는 랑그(langue)를 상정했다는 것, 역사적인 관점을 몰각했다는 것,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 등의 비판도 주류를 차지한다. 모아보면, 여러 현상에서 특정한 형(型, patten)을 추출하는 데만 매몰되어, 여러 현상이 나오게 된 사적(史的) 경위를 무시한 채, 여러 현상을 강제로 균질화한 다음, 여러 현상을 임의로 분류해버렸다는 비판으로 종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사실상 일본론 전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론에 속하는 텍스트들이 지닌 방법적 기초의 애매성을 지적하며,

(1) 에피소드주의 : 자료의 많은 부분이 단편적인 에피소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개인적인 체험, 자질구레한 실화 등으로 그것들을 짜 맞춘다.

64) 이어령은 문학사상사에서 전집에 해당하는 ‘이어령 라이브러리’를 내면서 『축소지향의 일본인』(문학사상사, 2003)을 약간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장의 제목과 구성도 조금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이전 판본들과 문학사상사 판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장 : 『縮小志向』의 여섯 가지 型 → 축소지향의 여섯 가지 모형, 3장 : 自然에 나타난 縮小文化 → 자연물에 나타난 축소 문화, 4장 : 제목 변화 없음, 5장 : 現代에 나타난 縮小文化 → 산업에 나타난 축소 문화, 6장 및 종장 : 제목 변화 없음, 다만, 종장이 6장의 마지막 하위 챕터로 편입됨.

(2) 언어주의 : 일본어 특유의 표현을 내세워 논한다. 격언을 인용하는 방법이 잘 쓰인다. (3) 이질적인 샘플의 비교 : 예컨대 일본의 대회사의 관리직 후보의 행동 양식과 서양 전반의 전 노동자와 비교하여 일본을 ‘종적 사회’로 하는 것 등. (4) 배타적 실감주의 : 일본에 관한 것은 일본인밖에 모른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5) 서양일원론 : 서양에 대한 일원적인 파악 방법. ‘서양’, ‘구미’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⁶⁵⁾

와 같이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미나미 히로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범위를 좀더 넓힌다면, 이러한 비판은 사실상 비교문화론(혹은, 민족지학(Ethnography))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문화마다 고유한 형이 존재한다고 본 루스 베네딕트의 작업에 대해 일찍부터,

그 논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엄정성과 객관성을 자랑할 수 있는 민족지는 애당초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족지에는 여러 겹으로 짜여진 우화(allegory)의 그물이 쳐져 있으며, 거기엔 저자의 속죄나 회한, 교훈적인 것으로 흐르는 편향 같은 것이 요술의 비밀장치처럼 장착되어 있다.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민족지는 각각의 방식으로 과학주의라든지 객관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뒤에서는 이미 시대의 은유(metaphor)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⁶⁶⁾

와 같이 평가한 제임스 클리포드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제 출된 일본론에, 비교문화론(혹은, 민족지학)에 대결의식을 가지고, 이를 한번 넘어서 보고자 출발한 이어령의 작업 역시도, 여러 일본론이 드러낸 기존의 문제점에서, 여러 비교문화론(혹은, 민족지학)이 드러낸 기존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는 못한 모양새로 수렴된다고 할 것이다.⁶⁷⁾ 그

65) 南博 (1994). 日本人論 : 明治から今日まで. 이관기 옮김 (2003). 일본인론下 (2판). 서울: 소화, 218.

66) 山折哲雄 (1997). 「日本人の行動パターン」を読んで. 서정완 옮김 (2000). 일본인의 행동패턴. 서울: 소화, 262-263.

67) 이어령의 작업은 미나미 히로시가 말한 일본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중에서 (4)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이거나, 또, 제임스 클리포드가 말한 과학주의, 객관

러나, 이러한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어령의 작업에서 어떤 유효성을 찾을 수 있다면, 혼하디혼한 일본론, 비교문화론(혹은, 민족지학)과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란 무엇인가.

이어령은 강한 소신이 있었다. 이어령은 애초부터 자신에게 날아드는 비판과 정반대의 견해를 가졌다. 이어령은 일본(문화)을 폭넓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분야 간의 접합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이어령은 ‘축소한다’라는 동사의 힘을 통할 때, 하이쿠와 세키테이(石庭), 꽃꽂이와 트랜지스터, 고대의 전통문화와 현대의 물질문화, 가시적인 물질문화와 불가시적인 정신문화 등과 같이, 전혀 결이 다른 것들을 함께 묶어낼 시야가 확보되는바, 이로부터 중립적으로, 탈이데올로기적으로 일본(문화)의 요체를 서술할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한즉, 사적 경위 무시라든지, 강제 균질화라든지, 임의 분류라든지 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이어령의 작업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⁶⁸⁾ 자연히 이어령의 작업은 (비록 다양한 문헌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객관성, 논리성의 영역에서 같은 부류에 속하는 여타의 작업보다 뛰어나다고 보기가 어렵다. 차라리 떨어진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⁶⁹⁾ 그런데도 주지하다시피 이어령의 작업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지 소수의 결과물만이 누릴 수 있는 경우였다. 일본론의 시원(始原)에 해당하는 루스 베네딕트의 작업이 적지 않은 오인을 드러냈음에도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남아있는 이유란, 저자의 직감적인 파악에 의해서 일본인의 국민성이 보기 좋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곳곳에서 보이는 저자의 예리한 관찰이 일본인의 성격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회 현상을 푸는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⁷⁰⁾ 마찬가지로, 이어령의 작업도 일

주의를 가장한 시대의 은유라는 규정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68) 이어령 (1994). 앞의 책, 122-123 참고. 물론, 전성옥이나 황호덕이 지적한 것처럼, 이어령의 이러한 관점이 후기식민지 주체의 탈역사적, 탈정치적 욕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69) 이때, 객관성,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체계적인 입증의 부족함을 뜻하기도 하거니와, 이와 더불어, 목적과 과정의 혼동이 빚어졌음을 뜻한다.

본적인 현상을 축소지향성으로 명징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만큼은 모두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어령의 작업에서 객관성, 논리성을 담보하지 못한 흠을 지적하는 편에서 있는 입장이더라도 이를 전연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직관이 기초가 되어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명제를 도출해내고, 다시, 수사가 명제의 설득력을 배가시킨다(물론, 이 말은 논증 자체가 부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칸스타티브(Constativ, 사실 확인적)의 언설이 아니라 퍼포머티프(Performative, 행위 수행적)의 언설로 간주한다면,⁷¹⁾ 이 정도로 효과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일본론이, 비교문화론(혹은 민족지학)이 (제임스 클리포드의 말처럼) 여러 겹으로 짜여진 우화일지언정, 우화를 문학에까지 다 다르게 만들어버린다면, 도리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전례를 이어령의 작업은 보여준 셈이다.⁷²⁾ 더하여, 이어령의 작업은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체계를 지닌 것으로 가정되는 타자의 공간”⁷³⁾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해체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일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루스 베네딕트도, 롤랑 바르트도, 레바-스트로스도, 그리고, 일본 내의 인사들도 제각기 작업이 과학적이었던 사회학적이었던, 혹은, 재현을 추구했던 허구화를 인정했던 간에, 비(非)서구로서의 일본성(Japaneseness)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⁷⁴⁾ 하지만, 이어령의 작업은 여태까지의 결과물들이 재현의 반복을 통해 일본이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이라는 비교항을 새로이 도입하여, 이를 한번 깨트려 보고자

70) 角田安正 (2008). 解説 ルース ベネディクト. 菊と刀. 角田安正 訳. 東京: 光文社, 504.

71)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홍래성 (2019). 앞의 논문, 97-99 참고

72) 이 문구는 이병주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착안되었다. “문체 이외의 수단으로 파악될 수 있는 진실이란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문명론, 문화론은 문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어령의 존재는 목격하면서 찬탄하다.” 이어령 (1994). 앞의 책, 320.

73) 공현정 (2017). 비재현적 글쓰기와 정동: <기호의 제국>과 <덕테>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 13.

74) 관련하여, “서구가 일본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일본은 서구와 비취봄으로써 다시 일본을 그게 맞게 재조정한다.”(Trifonas, P. P. (2001). Barthes and the Empire of Signs. 최정우 옮김 (2003). 앞의 책, 27)라는 문구를 덧붙여줄 수 있다.

한 시도로서 충분히 주목이 가능한 것이다.⁷⁵⁾ 한발 더 나아가, 이어령의 작업은 비단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닐 수 있다. 관련해서는, 이어령 스스로가 “일본에서 머물면서 책을 쓰고 있는 동안 나는 일본을 그냥 일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비쳐 보는 거울로 삼아 왔다. 고대문화를 볼 때에는 우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해 보았고, 그들의 과학기술이나 경제력의 현대문명을 대할 때에는 우리의 가능성을 점치는 실험용 생쥐로 느꼈다.”⁷⁶⁾라고 밝힌 것을 참고할 수 있거니와, 과연, 한국은 일본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비교항이긴 했으며, 일본과의 차이로써 그 자체 독자적인 특성이 밝혀지는 대상으로도 읽기게끔 기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침내 제6장에 도착한 다음,⁷⁷⁾ 이어령은 역시나 축소지향성이라는 무기를 활용하여, 일본인 특유의 ‘안’과 ‘밖’ 관념을 도출해낸다. ‘안’은 “축소 공간으로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구상적 세계, 피부로 느껴지는 작은 세계”이고, ‘밖’은 “확대 세계로 추상적인 넓은 공간”인데, “일본인은 무엇을 대하든 그것을 곧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⁷⁸⁾ 우찌(内)는 자기의 집을 뜻하는 말이고, 소토(外)는 자기 집 외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우찌가 확장되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 단체를 뜻하는 말이 되고, 소토는 자연히 남이 다니는 회사, 단체를 뜻하는 말이 된다. 우찌의 최대 영역은 일본 민족, 국가이며, 이럴 때, 소토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지칭하

75) 다만, 일본과 한국을 견주어서 1차 검증을 수행한 후, 다시, 서양과 견주어서 2차 검증을 수행하는 식의 전개가 종종 발견되는바, 최종 삼급으로서의 서양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한다.

76) 이어령 (1986a). 후기. 앞의 책, 340.

77) 이에 앞서 제5장의 말미 두 문단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어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다. “오늘의 산업사회에서의 축소지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물자를 절약하고, 스페이스를 절약하게 되는 유익한 문화가 된다. 추력 한 대부분의 부품이 오늘날에는 축소되고 축소되어 자전거 한 대면 죽하다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시대에서는, 잇슨보오시가 작은 거인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일본은 지금 대체 그 축소지향의 문화를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가? 축소지향의 문화에는 양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어령 (1983). 앞의 책, 295.

78) 위의 책, 301.

게 된다. 그런데, 일본인은 우찌에 있는 사람과는 ‘와(和)’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토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내비친다. 더하여, 이러한 우찌와 소토에 대한 인식이 두텁다 보니, 일본인은 우찌 안에서는 강점을 보이거나 소토로 나아가서는 약점을 보인다. 곧, 일본인은 축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확대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축소를 지향할 때는 언제나 번영했으나, 이러한 번영을 토대로 확대를 지향할 때면 늘 실패로 귀결되고 만 사례들이 여럿 확인된다. 그렇다면, 트랜지스터, 전자계산기, 비디오 등과 같은 축소지향의 산물로 산업사회의 첨단에 선 지금의 일본은, 다시, 축소지향의 산물로 확대지향을 도모하여 세계 무대에 진출했으나 심한 무역 마찰로 인해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처할 위기에 놓인 지금의 일본은, 대체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가. 일본이 선택해야 할 길은 축소지향인가, 확대지향인가.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고서 종장이 펼쳐지는바, 이어령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펼치는 것으로 길었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은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은 사무라이의 칼이 아니라 료안지와 같은 아름다운 세끼데이(石庭)이다. 그런 정원을 만들고 맑고 고요한 다실 문화를 낳은 일본인, 설사 역사를 피로 씻은 사무라이 사회의 살륙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속죄하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꽃의 문화를 만들어 낸 일본인……그러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역사 속에서 한번도 그 주인이 되지 못했다. 칼을 가진자와 주판을 가진 자만이 역사를 지배했던 것이 일본의 비극이었다. 이제부터 「군사대국」 「경제대국」이 아니라 「문화대국」의 새 차원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야만 확대지향도 제 빛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인의 축소지향력은 정원을 만들고 다도(茶道)와 화도(華道)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트랜지스터를, 전자 탁상계산기를 만들었다./ 앞으로는 그 고도(碁)와 같은 생명의 울림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더 커지고 싶으면, 참다운 대국이 되고 싶으면, 더 작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도깨비(鬼)가 되지 말고 난장이(一寸法師)가 되라. 배를 태워 고도를 만들라. 그 소리가 7대양(七海)에 울리도록……」⁷⁹⁾

루스 베네딕트의 작업이 다분히 목적성을 띠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지막 장에서의 본심 노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⁸⁰⁾ 여기에 비춰보아 이어령의 작업도 다분히 목적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이어령은 일본과 한국이 아직 대등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객관적으로도 1980년대 초엽의 시점에서 한국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지만, 그때가 초호황기였던 일본에 비한다면 턱없이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자명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어령은 이와 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한 양국이 가까워지기란 어렵다고 보았다. 격차가 좁혀져야 더 밝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어령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 의식을 각성해주길 원했다.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웃과 돕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길 기대한 것이다.⁸¹⁾ 이어령의 제안에는 이러한 사정이 밑받침되어 있다. 이어령은 일본을 향해서 축소를 지향하라고 말한다. 많이들 오해하고 있지만, 이곳저곳에서 이어령의 밝힌 바를 따르다면, 이는 일본이 확대를 지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호소하는 발화가 결코 아니며, 또한,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을 겨냥한 발화가 결코 아니다. 당장 위의 인용문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이어령은 일본이 축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를 “‘문화대국’의 새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함으로 들고 있다. 더하여, 이어령은 그렇게 해야만 “확대지향도 제 빛을 차지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령은 일본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각성을 토대로 일본이 ‘축소시키면 반대로 커지는 문화적 작은 거인의 모습’⁸²⁾을 지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⁸³⁾

79) 위의 책, 338-339.

80)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의 마지막 장(“제13장 패전 후의 일본인”)에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며,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적절한 방향을 넉넉히 제시하고 있다. 애당초 루스 베네딕트는 전시정보국 소속으로 일본 탐사를 수행했다.

81) 이어령 (1986a), 앞의 책, 216-217 참고.

82) 위의 책, 280 참고.

83) 보충하건대, 이어령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문화에는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가령, 카세트, 트랜지스터 등 최근에 일본이 내세우는 산업 산물만 보아도 서구에서 발명된 것을 축소의 방법으로 개량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제 일본이 앞장서서 뛰어나가려면 서구를 복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어령의 이러한 주장은, 비록 이어령이 문화를 경제, 정치보다 높은 상위의 개념으로 인

바로 여기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통해서 일본 사람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인 끝에 비로소 다다른 이어령의 도착점이었다.

IV. 맺음말 :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발간한 이후에도 이어령은 신문 지면에다가 여러 차례 일본(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때에도 한국은 비교의 잣대로 계속 활용되었던바, 가령, “日本人의 문화는 「좁히고 죄는 문화」이고 韓國人の 문화는 「틈을 주고 푸는 문화」인데, “어느쪽이 좋은지는 말할수 없고 다만 그것을 잘 이용하는 국민만이 발전할수 있다.”⁸⁴⁾라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한국과 견주는 방식으로 일본(문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던 이어령은, 무게중심을 한국으로 차츰 옮겨와서, 축소지향성을 일본(문화)과 연결 지었던 것처럼, ‘신바람’을 한국(문화)과 잇고자 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나간다.

우리는 「신바람」을 아는 민족이에요. 동물에겐 그런게 있을 수 없지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인정받고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해 왔읍니다. 일본인들은 명석을 펴 놔야 뭔가 하는 민족인 데 비해 우린 펴 놓으면 안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명석을 깔지 않아도 신바람만 나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⁸⁵⁾

<신바람>을 낼 수 있는 민족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잠재했던 민족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정감록 같은 이

식하고 있었다라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들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문화 대국의 새 차원이란 개념 또한 추상적으로만 언급되고 마무리가 이뤄진 탓에 일본이 추구해야 할 이상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는 약점을 가진다.

84) 푸는文化와 죄는文化 (1982.6.11). 동아일보, 6.

85) 이어령 (1985). 思索의 메아리. 서울: 갑인출판사, 194-195.

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언제나 <위험에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⁸⁶⁾

그리고 이러한 신비람을 통한 한국(문화) 들여다보기는 『푸는문화 신비람의문화』(잡인출판사, 1984)로, 또 『신한국인』(문학사상사, 1986), 『그래도 바람개비는 돈다』(동화서적, 1992) 등의 결과물로 이어진다.⁸⁷⁾ 이로 보면,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한국(문화) 탐사에 있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데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의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보여준 바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에서 1980년대 이후의 여러 한국(문화) 관련 책들이 보여준 바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으로, 그 인식의 전환을 추동한 핵심 요인은 근 20년 시차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정치적 현실 변화 및 이어령의 생물학적 연령 변화였을지언정,⁸⁸⁾ 한국(문화) 탐사를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 여태껏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도외시해왔던 일본이라는 비교항이 도입된 계기는, 그리하여, 더욱 풍성한 한국(문화) 탐사가 가능케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이어령은 일본을 언급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1980년대의 이어령은 일본과 한국을 견주기를 즐겨 활용하기 시작한다. 이 변곡점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놓여있다. 이렇듯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일본(문화) 이해에도 기여했지만, 한국(문화) 탐사도 이바지했다. 이어령은 일본이라는 아포리아를 마주한 이후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주제어】 이어령, 일본(문화)론, 축소지향성, 비교문화론, 민족지학

86) 위의 책, 195.

87) 덧붙여두자면, 신비람은 ‘한’, ‘풀이’와 한 쌍을 이룬다. 즉, 가슴에 뭉친 한을 풀어야 신비람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문화가 풀이 문화로, 풀이 문화가 신비람 문화로 이어지는 흐름인 것이다. 훗날 이어령은 이 세 가지를 두고서 “한국문화에 대한 내 생각의 궤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문화 코드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 이어령 (2002). 풀이 문화의 지향성. 푸는 문화 신비람의 문화. 서울: 문학사상사, 45 참고

88) 이동하 (1996). 영랑의 길, 고독의 길.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서울: 강, 294 참고

[참고문헌]

- 강두식 (1994). 괴테의 자연탐구. 독일학연구, 3, 105-116.
- 공현정 (2017). 비재현적 글쓰기와 정동: <기호의 제국>과 <딕테>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비교문학.
- 권보드래, 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 김민정 (2005). 이어령 수필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김민희 (2021). 이어령, 80년 생각. 고양: 위즈덤하우스
- 김성민 (2017). 일본을 禁하다. 파주: 글항아리.
- 김윤식 (1974). 한일문학의 관련양상. 서울: 일지사.
- 김윤식 (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서울: 그린비.
- 김현 (1971). 테로리즘의 文學—五十年代 文學小考. 문학과 지성.
- 김현 (1991). 행복의 시학/제강의 꿈.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박동성 (2015). 한일 간 인류학 교류와 한국 인류학의 일본 연구. 이종구 · 이소자키 노리요 외. 한일관계사1965-2015 III사회 · 문화. 서울: 역사공간.
- 박숙자 (2012). 1950년대 ‘문학전집’의 문화사: 문교부의 ‘우량도서’ 제도와 한글세대의 등장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5, 83-124.
- 박주연 (2016.1.1). [경향사람들](1) 28세 때 논설위원 입사 이어령. 경향신문, 5.
- 안서현 (2018). 1960년대 이어령 문학에 나타난 세대의식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6, 9-41.
- 염무웅, 김윤태 (1997). 1960년대와 한국문학. 작가연구, 3.
- 유진오, 이어령 (1960). 日本을 말한다. 새벽.
- 이동하 (1996). 영광의 길, 고독의 길. 김윤식 외.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 서울: 강
- 이어령 (1963).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서울: 현암사.
- 이어령 (1965). 流刑地의 아침. 서울: 예문관.
- 이어령 (1966.1.5). 第三世代. 중앙일보, 5.
- 이어령 (1982b). 축소지향의 일본인. 서울: 고려원.
- 이어령 (1983). 축소지향의 일본인 (중판). 서울: 갑인출판사.
- 이어령 (1985). 思索의 메아리. 서울: 갑인출판사.
- 이어령 (1986a). 한국과 일본과의 거리. 서울: 삼성출판사.
- 이어령 (1986b). 신한국인. 서울: 문학사상사.
- 이어령 (1994).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서울: 기린원.

- 이어령 (2002). 푸는 문화 신비람의 문화. 서울: 문학사상사.
- 이어령 (2003). 축소지향의 일본인. 서울: 문학사상사.
- 이어령 (2015a). 가위바위보 문명론. 서울: 마로니에북스.
- 이어령 (2015b). 보자기 인문학. 서울: 마로니에북스.
- 이어령 (2016). 즐기는 자들의 행복한 대학. 김형석 외.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서울: 프런티어.
- 이어령, 김용희 (2005). 이어령 선생의 해방전후 이야기를 듣다. 서정시학, 15(3).
- 이임자 (1998).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서울: 경인문화사.
- 임재동 (2002). 괴테의 시 「식물의 변태」에서 서정적 주체. 혜세연구, 7, 73-95.
- 전성욱 (2020).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우리문학연구, 65, 375-402.
- 정구종, 이어령 (1982.3.12). (東亞인터뷰)“韓國은 日을 가장 예리하게 본다”. 동아일보, 9.
- 鄭大均 (1984). 『「縮み」志向の日本人』への方法論的疑問. 日本學報, 12, 353-578.
- 조선희 (1992.3.20). 정신적 보복속 지울수 없는 상흔 <축소지향의 일본인>. 한겨레신문, 22.
- 최구식 (1990.8.16). 主觀的인 “感想文”만 70여종 전문서가 없다. 조선일보, 9.
- 푸는文化와 죄는文化 (1982.6.11). 동아일보, 6.
- 한수영 (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서울: 소명출판.
- 홍래성 (2019). 이어령 문화비평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황호덕 (2010).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 기식민지인의 초상. 일본비평, 3호, 166-191.
- Lévi-Strauss C. (2011). L'Autre Face de la lune. 류재화 옮김 (2014). 달의 이면. 서울: 문학사상사.
- Naoki Sakai (1997).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 후지이 다케시 옮김 (2005). 번역과 주체. 서울: 이산.
- Poulet. G. (1951). Études sur le temps humain. Coleman. E. Translated by. (1956). Studies in HUMAN TIME.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 Poulet. G. (1951). Études sur le temps humain. 김기봉 외 옮김 (1998). 인간의 시간.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Poulet. G. (1971). La conscience critique. 조한경 옮김 (1990). 비평과 의식. 서울: 탐구당.
- Poulet. G. ed. (1967). Les Chemins actuels de la critique. 김봉구 옮김 (1979). 現代批評의 理論. 서울: 홍성사.
- Trifonas. P. P. (2001). Barthes and the Empire of Sings. 최정우 옮김 (2003). 바르트와 기호의 제국. 서울: 이제이북스.

- 南博 (1994). 日本人論：明治から今日まで. 이관기 옮김 (2003). 일본인론下 (2판). 서울: 소하.
- 山折哲雄 (1997). 「日本人の行動パターン」を読んで. 서정완 옮김 (2000). 일본인의 행동 패턴. 서울: 소하.
- 角田安正 (2008). 解説 ルース ベネディクト. 菊と刀. 角田安正 訳. 東京: 光文社.
- 李御寧 (1982a). 「縮み」志向の日本人. 東京: 學生社.

[국문초록]

본 논문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들의 성과에 기대는 가운데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거니와, 이와 함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앞뒤로 한 이어령의 내면풍경까지를 추적해보았다.

우선, 본 논문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어령이 일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이는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탄생한 배경을 가늠하는 한편,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후의 궤적,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었다. 이어령에게서 일본 관련 언설은 잘 찾아지지는 않았으나, 몇 가지를 통해서나마 이어령에게서 일본에 대한 양가성의 감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상세히 검토했다. 이어령은 일본 사람들에게 나를, 한국(인)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에 대한 양가성의 감정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는 왜 일본어로 집필했는지, 어떻게 ‘축소’라는 착상을 얻었는지, 그리고, 실제 서술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문화와 언어 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 ‘축소’라는 핵심 열쇠를 획득하게 된 경위, 직관과 수사의 힘, 일본을 향한 속내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A Study on Lee O-young's *Small is Better*

Hong, Rae-seong (University of Seoul)

This paper attempted to understand *Small is Better* in detail. It analyzed the book by referring to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Lee O-young's consciousness before and after the publication of *Small is Better* was examined.

Before reviewing *Small is Better*, we looked at Lee's attitude toward Japan, because we wanted to know the background in which *Small is Better* was created and to effectively guess his moves after the book. Lee did not write much about Japan, but several of his writings showed that he was ambivalent toward Japan.

As a next step, this paper specifically reviewed *Small is Better*. Lee said he wrote the book to prove himself and Korea to the Japanese. This behavior by Lee is interpreted as an intention to overcome his ambivalence toward Japan. *Small is Better* was analyzed in detail with three questions. First, why did Lee write in Japanese? Second, how did he get the idea of "reduction"? Third, what was the way Lee actually described it? With these questions, this paper was able to understand Lee's thou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language, how he acquired the keyword "reduction," the power of his intuition and rhetoric, and how he felt about Japan.

[Keywords] Lee O-young, Japanese culture discourse, A temperament to reduction, Comparative culture theory, Ethnography

논문투고일: 2021.3.29 / 논문심사일: 2021.4.21 / 게재확정일: 2021.4.25.

[저자연락처] redgorae@uos.ac.kr